<h1>나 혼자만 레벨업-3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z3df53d3607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화</p>  
<p>주희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진우도 덩달아 놀랐다.</p>  
<p>"왜요? 어디 아파요?"</p>  
<p>"저... 저기."</p>  
<p>주희의 손끝을 따라 진우의 시선이 옮겨갔다.</p>  
<p>거대한 신상.</p>  
<p>주희는 신상의 얼굴을 가리키고 있었다.</p>  
<p>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기에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...?"</p>  
<p>주희가 말을 더듬었다.</p>  
<p>"누, 눈동자... 신상의 눈동자가 방금 우리 쪽으로 움직였어요."</p>  
<p>"예?"</p>  
<p>몇 번을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신상은 그대로였다.</p>  
<p>"에이... 착각이겠죠."</p>  
<p>하지만 주희의 귀에는 이미 진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지, 고개 숙인 그녀는 진우의 팔에 달라붙어서 오들오들 떨기만 했다.</p>  
<p>'잠깐.'</p>  
<p>문득 진우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.</p>  
<p>주위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.</p>  
<p>'소리가...?'</p>  
<p>타닥타닥 타오르던 횃불 소리도 어느 사이인가 들리지 않고 있었다.</p>  
<p>"첫째."</p>  
<p>그 와중에도 석판을 읽어 내려가는 송 씨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.</p>  
<p>"신께 경배하라. 둘째, 신께 찬양하라. 셋째, 신앙심을 증명하라. 이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, 살아 돌아갈 수 없으리라.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쿠웅!</p>  
<p>갑자기 터져 나온 소음에 모두가 화들짝 놀랐다.</p>  
<p>"뭐, 뭐야?"</p>  
<p>"갑자기 무슨 소리야?"</p>  
<p>이변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진우였다.</p>  
<p>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터라 어느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.</p>  
<p>"문! 문이 닫혔어요!"</p>  
<p>진우가 소리치자 다들 문 쪽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열어 두었던 문이 어느새 굳게 닫혀 있었다.</p>  
<p>"에라이! 더 이상 못 참겠네!"</p>  
<p>이중 던전에 들어가는 걸 가장 먼저 반대했던 남자가 욕지기를 내뱉으며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.</p>  
<p>"나는 돌아갈 테니까 보스고 보물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잡수쇼."</p>  
<p>송 씨에게 항의라도 하듯이 눈을 부라리던 남자.</p>  
<p>그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문고리를 세차게 잡았다.</p>  
<p>그 순간.</p>  
<p>송 씨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안 돼!"</p>  
<p>퍼걱!</p>  
<p>문고리를 잡았던 남자의 목 위쪽이 사라졌다.</p>  
<p>머리를 잃은 몸뚱이는 힘없이 뒤로 넘어갔다.</p>  
<p>철푸덕!</p>  
<p>"꺄아아악!"</p>  
<p>"으, 으악!"</p>  
<p>헌터들이 비명을 내질렀다.</p>  
<p>사람의 머리를 철퇴로 박살 낸 석상은 피를 잔뜩 뒤집어쓴 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래의 자리인 문 옆으로 가서 섰다.</p>  
<p>"저, 저거 움직이잖아!"</p>  
<p>"뭐야? 그럼 여기 있는 석상들이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?"</p>  
<p>"저런 것들과 싸우라고?"</p>  
<p>"내 눈엔 철퇴 휘두르는 거 보이지도 않았다고!"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.</p>  
<p>참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.</p>  
<p>방금 전 주희가 말했었다.</p>  
<p>"누, 눈동자... 신상의 눈동자가 방금 우리 쪽으로 움직였어요."</p>  
<p>'정말 그게 사실이라면...'</p>  
<p>등 뒤에 소름이 쫙 돋았다.</p>  
<p>진우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목을 억지로 움직여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아..."</p>  
<p>신상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.</p>  
<p>3. 시작된 공격</p>  
<p>그 순간 신상의 거대한 두 눈이 붉게 변했다.</p>  
<p>헌터의 감?</p>  
<p>아니, 생물로서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했다.</p>  
<p>뭔가가 온다.</p>  
<p>감당하지 못할 무언가가!</p>  
<p>진우는 뒤의 헌터들을 돌아보며 목청을 다해 외쳤다.</p>  
<p>"숙여요!"</p>  
<p>거의 동시에 신상의 양쪽 눈에서 붉은 광선이 뿜어져 나왔다.</p>  
<p>진우는 주희를 안고서 몸을 던졌다.</p>  
<p>지이이이잉-!</p>  
<p>광선은 진우가 서 있던 자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.</p>  
<p>10분의 1초.</p>  
<p>아니, 100분의 1초.</p>  
<p>아슬아슬했던 순간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다른 헌터들도 다 진우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.</p>  
<p>"으아아아악!"</p>  
<p>"으아아악!"</p>  
<p>광선에 닿은 헌터들은 말 그대로 증발해 버렸다.</p>  
<p>광선이 지나간 자리에는 헌터들의 잔해만 덩그라니 남았다.</p>  
<p>비명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최후를 목격한 다른 헌터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다.</p>  
<p>"이, 이게 뭐야?"</p>  
<p>"으으으-."</p>  
<p>"어째서 이런 일이..."</p>  
<p>헌터들은 경악했다.</p>  
<p>16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11명.</p>  
<p>이런 가공할 만한 공격은 생전 겪어 본 적이 없었다.</p>  
<p>'숙이라는 소리 덕분에 간신히 피했어.'</p>  
<p>'방금 성 씨가 소리치지 않았다면...'</p>  
<p>헌터들은 진우를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진우는 생명의 은인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아니었다면 방금 어떻게 됐을지, 간담이 서늘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엎드린 채로 신상을 노려보았다.</p>  
<p>신상의 눈은 아직 붉게 빛나고 있었으나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다.</p>  
<p>'공격은... 끝난 건가?'</p>  
<p>진우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겁에 질린 주희가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.</p>  
<p>그녀가 B급의 뛰어난 헌터임에도 대형 길드 대신 협회 소속으로 일하며 간단한 레이드에만 참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.</p>  
<p>주희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그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순 없었다.</p>  
<p>진우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는데,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어깨를 잡아 눌렀다.</p>  
<p>"일어서지 말어."</p>  
<p>어느새 다가온 송 씨였다.</p>  
<p>진우는 당황해하면서도 순순히 그의 말을 들었다. 송 씨가 다른 헌터들에게도 외쳤다.</p>  
<p>"다들 움직이지 말어! 그 자세로 가만히 있어!"</p>  
<p>송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다시 진우에게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"움직이던 사람들만 당했어. 자네 말 듣고 숙였던 사람들은 살았고."</p>  
<p>"그렇군요."</p>  
<p>송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자네는 다 알고 소리쳤던 게 아닌감?"</p>  
<p>"전 그냥 뭔가 위험한 거 같아서..."</p>  
<p>송 씨의 눈에 이채가 서리었다.</p>  
<p>'감이 좋은 친구구먼. 이 친구 E급이라고 했었나? 능력치가 조금만 더 높았어도...'</p>  
<p>송 씨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는 동안, 진우도 송 씨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.</p>  
<p>뭔가를 발견한 진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아, 아저씨... 팔이?"</p>  
<p>"이건 괜찮어. 견딜 만혀."</p>  
<p>"그래도..."</p>  
<p>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진우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팔의 반대쪽, 그러니까 송 씨의 왼팔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.</p>  
<p>"..."</p>  
<p>말없이 주희를 내려다보던 송 씨는 통증이 극심할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입고 있던 티셔츠를 길게 찢어 왼팔에 둘둘 말았다.</p>  
<p>"끝에 좀 묶어 줄 텐감? 한손으로는 어렵구먼.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간단한 지혈이 끝났다.</p>  
<p>송 씨는 비명이나 신음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헌터 생활 10년의 오랜 연륜이 묻어 있는 한숨이었다.</p>  
<p>"후-."</p>  
<p>응급 처치가 끝나고 송 씨는 예리한 시선으로 주변을 훑었다.</p>  
<p>신상이 공격을 멈췄다고는 하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.</p>  
<p>그렇게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다.</p>  
<p>"으흐흐흐흑..."</p>  
<p>"우리가 왜 이런 꼴을..."</p>  
<p>몇몇 헌터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"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!"</p>  
<p>헌터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도 동감이었다.</p>  
<p>'언제까지고 이렇게 있을 순 없다.'</p>  
<p>하지만 어떻게 한단 말인가?</p>  
<p>송 씨의 추측이 맞는다면 움직이는 순간 공격을 당하게 된다.</p>  
<p>그걸 피해 어떻게 운 좋게 문까지 도망친다고 해도 문 양쪽 옆에는 문지기 석상이 있다.</p>  
<p>놈들이 문제다.</p>  
<p>아까 문지기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빨랐다.</p>  
<p>놈들이 공격하기 전에 문을 열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?</p>  
<p>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.</p>  
<p>즉, 헌터들의 전멸은 시간문제라는 소리였다.</p>  
<p>'잠깐... 시간문제라고?'</p>  
<p>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강한 위화감이 들었다.</p>  
<p>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난 것.</p>  
<p>하지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.</p>  
<p>'뭔가... 뭔가 놓친 게 있다.'</p>  
<p>아마도 답은 그 안에 있으리라.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"움직이지 말어!"</p>  
<p>송 씨가 멀리 주 씨에게 소리를 질렀다.</p>  
<p>하지만 주 씨는 이를 드러냈다.</p>  
<p>"시끄러워! 저놈이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란 거야?"</p>  
<p>주 씨는 전투계 헌터였다.</p>  
<p>전투계는 몸으로 싸우는 헌터들로 신체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났다.</p>  
<p>게다가 주씨는 실력을 인정받아 대형 길드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.</p>  
<p>"난 이렇게는 못 죽어."</p>  
<p>주 씨는 몸을 낮춘 상태로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.</p>  
<p>방향은 문 쪽.</p>  
<p>그의 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.</p>  
<p>"저런..."</p>  
<p>송 씨가 나직이 중얼거렸다.</p>  
<p>순간 주 씨가 땅을 박차며 튀어 나갔다.</p>  
<p>다다다닥!</p>  
<p>진우는 신상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 신상의 눈동자가 주 씨를 향하고 있었다.</p>  
<p>이내 두 눈동자에서 섬뜩한 광선이 뿜어져 나왔다.</p>  
<p>지이이잉!</p>  
<p>광선은 주 씨의 등 뒤를 덮쳤다.</p>  
<p>"꺄아아아악!"</p>  
<p>여자 헌터 하나가 자지러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.</p>  
<p>실금했는지 그녀가 앉아 있던 자리에 노란 물이 번져나갔다.</p>  
<p>남자 헌터들의 얼굴도 굳어졌다.</p>  
<p>"맙소사..."</p>  
<p>광선이 지나간 자리에 주 씨는 없었다.</p>  
<p>잘려진 두 발목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이었다.</p>  
<p>비위가 약한 한 남자는 속에 든 것을 게워 냈다.</p>  
<p>"우욱- 우웨에엑!"</p>  
<p>진우도 미간을 구겼다.</p>  
<p>역시 이 녀석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헌터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.</p>  
<p>그건 벌레를 밟아 죽이는 것보다 쉬운 일처럼 보였다.</p>  
<p>'그런데 왜... 그러지 않는 걸까?'</p>  
<p>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는다.</p>  
<p>헌터들만 보면 다짜고짜 덤벼드는 마수들과는 패턴이 전혀 달랐다.</p>  
<p>이 녀석들은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움직인다.</p>  
<p>문에 다가가면 공격하는 문지기, 움직이면 광선을 뿜는 신상의 눈.</p>  
<p>마치 규칙이 있는 게임처럼.</p>  
<p>'설마... 이 방에는 룰이 있는 건가?'</p>  
<p>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이 맞춰졌다.</p>  
<p>아까 송 씨가 읽었던 석판의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.</p>  
<p>'카르테논 신전의 규율.'</p>  
<p>규칙은 룰이고, 룰은 규율이다.</p>  
<p>만약 이들의 손아귀에서 살아나갈 방법이 있다면 그 석판에 적혀 있던 경고가 유일한 열쇠였다.</p>  
<p>"...신께 경배하라."</p>  
<p>그게 첫 번째 규율이었다.</p>  
<p>"음? 자네 뭐라고 했는감?"</p>  
<p>송 씨가 진우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진우는 대답 대신 입가에 검지를 붙였다.</p>  
<p>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제스처였다.</p>  
<p>'내 생각이 맞다면...'</p>  
<p>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.</p>  
<p>송 씨가 급히 진우를 잡으려고 했으나, 진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'...살기를 포기한 눈빛은 아니군.'</p>  
<p>송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진우는 신상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그러자 신상의 눈동자가 곧바로 진우를 향했다.</p>  
<p>지이이잉-!</p>  
<p>역시나 광선이 쏘아졌다.</p>  
<p>주저앉은 속도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아니라 얼굴이 녹았으리라!</p>  
<p>바닥에 납작 엎드린 진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.</p>  
<p>"헉, 헉, 헉, 헉."</p>  
<p>죽을 뻔했다.</p>  
<p>신상과 눈이 마주친 순간 꼼짝 없이 죽는 줄 알았다.</p>  
<p>간발의 차로 피했지만 아직도 다리가 떨려 왔다.</p>  
<p>'그래도...'</p>  
<p>소득은 있었다.</p>  
<p>'움직이는 대상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.'</p>  
<p>몸을 숙인 상태라면 얼마든지 자세를 바꿔도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는다.</p>  
<p>하지만 일어서려고만 하면 어김없이 광선을 퍼붓기 시작한다.</p>  
<p>'놈은 일정 이상의 높이가 되면 공격하는 거야.'</p>  
<p>방금 진우는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.</p>  
<p>그리고 확신을 얻었다.</p>  
<p>첫 번째 규율의 의미를!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